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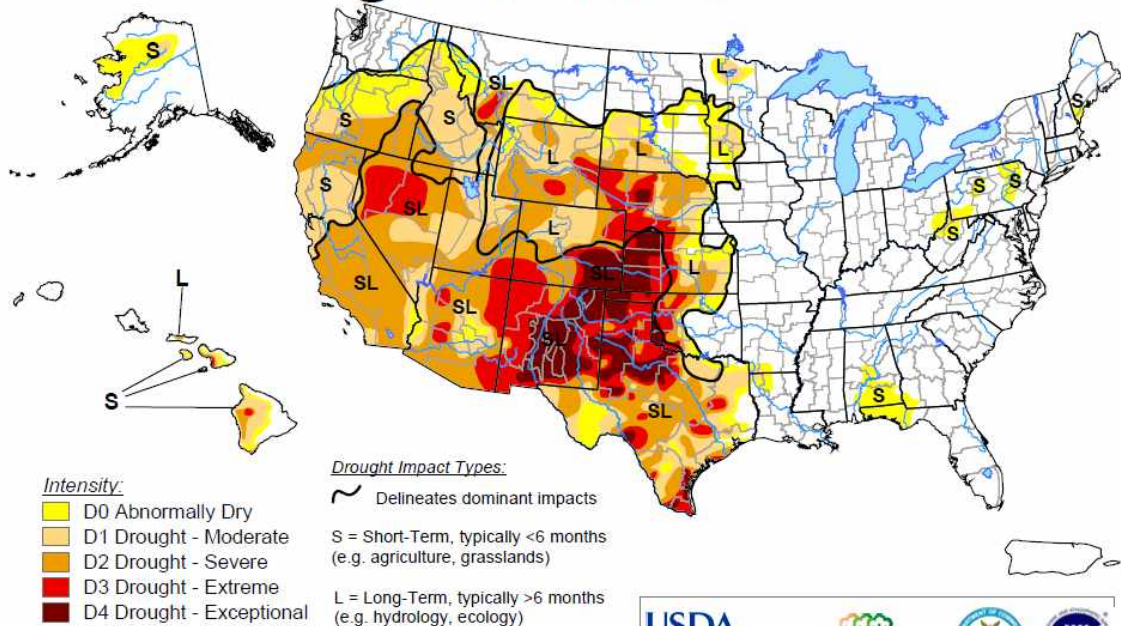


※ 6월 25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0, No. 26)

□ 미국 기후 현황(6/16~6/22)

U.S. Drought Monitor

June 18, 2013
Valid 8 a.m. ED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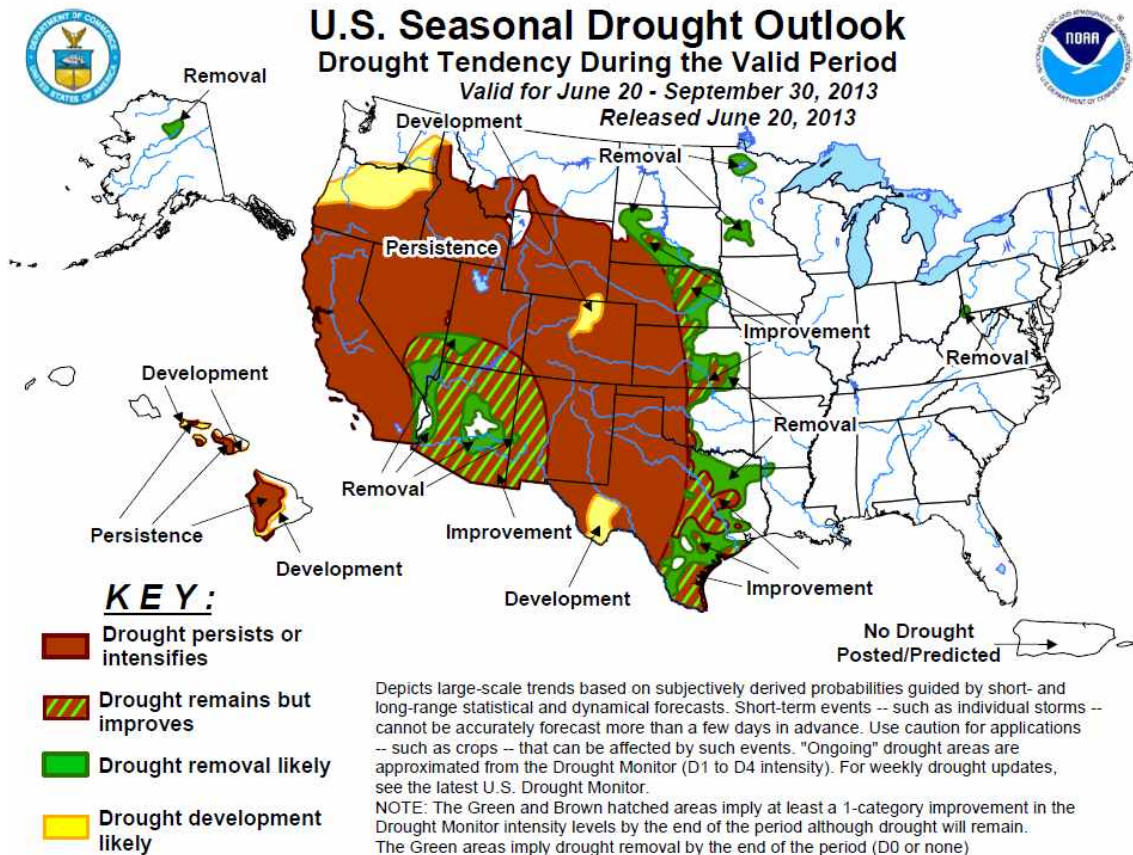
The Drought Monitor focuses on broad-scale conditions.
Local conditions may vary. See accompanying text summary
for forecast statements.

<http://droughtmonitor.unl.edu/>



Released Thursday, June 20, 2013

Author: Mark Svoboda, National Drought Mitigation Center



미국 북서부지역, 그리고 대평원에서 동부해안에 이르는 지역에 금주 소나기와 뇌우가 내려 발작업이 정미하게 지연되었다. 중서부의 위쪽지역에 비가 가장 많이 왔으며(총강수량 2~4인치), 이로 인해 대두의 파종 막바지 작업이 지연되었다. 반면에 콘벨트 동부와 아이오와-일리노이-미주리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남서부의 캘리포니아에서 로키산맥 중부 및 남부에 이르는 지역, 그리고 텍사스 남부에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이 지역은 가뭄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고온건조한데다가 바람도 많이 불어 산불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한편 남동부 내륙지역 및 대서양연안의 중부 및 남부 주간강수량은 2인치였다. 3년 째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고원 중부 및 남부는 기온이 높아 관개용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나, 금주에 약한 비가 내려(강수량 1~2인치) 가뭄이 더 심화되는 것이 방지되었다. 북서부지역은 서늘하고 소나기가 내려 발작업속도가 둔화되었으나 작황이 좋아졌다. 그러나 콘벨트 서부지역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다.

□ 미국 주간 농업현황(6/17~6/23)

중부지역의 기온은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었지만 태평양 및 대서양 연안지역은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Great Basin지역은 6월 초에 기온이 기록적인 수준이었으나 금주에 평년보다 화씨 6도 이상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여 작황이 좋아졌다. 대평원 북부에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은 수준이어서 파종 및 작물의 생육발달이 계속 지연되었으나, 남동부 및 Four Corners지역은 건조기후가 지속되었다.

옥수수: 6월 23일 기준 발아율은 96%였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4%p 느리고 5년 평균대비 3%p 느린 수준이다. 콘벨트 기후가 온난건조하여 작황이 좋아졌으며 파종을 아직 못한 생산농가들은 금주에 옥수수 파종을 진행하기도 했다. 옥수수의 좋음/아주 좋음 등급은 65%로 전주대비 소폭 증가하고 전년 동기대비 9%p 낮은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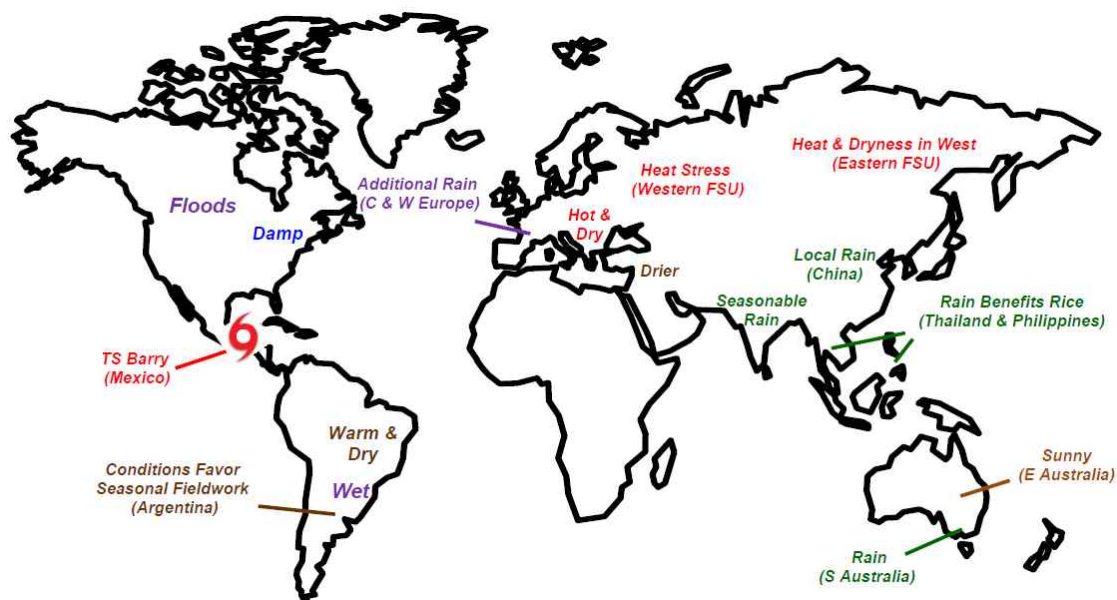
대두: 6월 23일 기준 파종율은 92%로 전년 동기대비 7%p 느리고 5년 평균 대비 3%p 느린 수준이다. 인디애나 주의 기후가 주초에 좋았기 때문에 그동안 과도한 비로 인해 미루어졌던 발작업이 잘 진행되었다. 6월 23일 기준 발아율은 81%로 전년 동기대비 17%p 느리고 5년 평균대비 8%p 느린 수준이다. 대평원 북부에는 호우가 내려 국지적 홍수 및 작황피해가 발생했다. 좋음/아주 좋음 등급은 65%로 전주대비 소폭 증가하고 전년 동기대비 12%p 높다.

겨울밀: 6월 23일 기준 출수율은 95%로 전년 동기대비 2%p 느리나 5년 평균에 상응하는 수준이다. 캔자스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바람이 많이 불어 겨울밀이 급속도로 성숙되었다. 캔자스에서 황변한 겨울밀은 92%, 성숙한 겨울밀은 47%로 보고되었다. 6월 23일 기준 전국의 수확율은 20%로 전년 동기대비 43%p 느리고 5년 평균대비 17%p 느린 수준이다. 좋음/아주 좋음 등급은 32%로 전주대비 소폭 증가하고 전년 동기대비 22%p 낮은 수준이다.

봄밀: 6월 23일 기준 파종율은 96%로 전년 동기대비 4%p 느리고 5년 평균 대비 3%p 느린 수준이다. 발아율은 90%로 전년 동기대비 10%p 느리고 5년 평균 대비 7%p 느린 수준이다. 태평양연안 북서부에는 적시에 비가 내려 작황이 좋아졌다. 좋음/아주 좋음 등급은 70%로 전주대비 2%p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대비 7%p 낮은 수준이다.

쌀: 6월 23일 기준 출수율은 3%로 전년 동기대비 12%p 느리고 5년 평균 대비 3%p 느린 수준이다. 좋음/아주 좋음 등급은 68%로 전주와 동일하나 전년 동기대비 3%p 낮은 수준이다.

□ 세계 기후 현황(6/16~6/22)



- 유럽: 동유럽은 고온건조해졌으나 중부 및 서부유럽은 보통~많은 비가 다시 내렸다. 유럽의 저지대(Low Countries, 역자 주: 유럽 북해 연안의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로 구성된

지역),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한랭전선이 느리게 이동하며 뇌우(총강수량 국지적으로 50mm 이상)를 내렸다. 이로 인해 토양수분이 국지적으로 과도한 수준이 되었고 겨울밀의 수확작업이 어려워졌다. 스페인 북부에도 소나기가 내려(강수량 10-30mm) 겨울밀의 수확작업이 어려웠으나 옥수수에는 충분한 관개용수가 공급되었다. 한랭전선이 다가오기 이전 중부유럽의 기온은 섭씨 30도 중반의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으며(독일 남부에서 최고 36℃ 기록) 출수기의 작황이 나빠졌었다. 올해 초봄에 호우가 내려 옥수수의 입모상태가 불량했던 이탈리아의 경우 기후가 고온건조해져(30-35℃) 작황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고온건조한 동유럽의 경우(폴란드 남부, 체코공화국에서 다뉴브강 유역에 이르는 지역 기온 35℃ 초과) 생육발달 및 생식성장단계인 작물의 작황이 나빠졌다. 폴란드 서부 및 북부 기온도 평년보다 5~7℃ 높은 수준인데(낮 최고기온 섭씨 30도대 초반) 출수기에 진입한 겨울밀 작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주말에는 한랭전선이 동유럽에도 영향을 미쳐 기온이 낮아지고 비가 내렸다.

- 구소련(서부): 벨라루스 서부, 우크라이나 남부 및 동부, 러시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기압골이 초래한 열파로 인해 등숙말기의 겨울밀 작황이 나빠지고 있다. 남구의 북쪽, 볼가구역의 남동쪽에서 낮 최고기온은 계절적이지 않게 높은 35℃였다. 한편 겨울밀 주산지인 러시아 남부 및 서부(볼가구역 서쪽과 중앙구역 동쪽에서 남쪽으로 남구에 이르는 지역)는 흐리고 소나기(강수량 10-80mm)가 계속 내려 열파의 영향이 약화되었고, 등숙기의 겨울밀 작황이 좋아졌다.
- 동아시아: 주산지에 아직 가뭄이 남아있는 곳이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 비가 내려 작황이 좋아졌다. 흑룡강성과 지린성(강수량 5-15mm)에서 옥수수, 쌀, 대두의 토양수분이 증가했다. 한편 랴오닝성과 내몽골지역은 유사한 강수량의 비가 내렸으나 그간 가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수분부족이 거의 완화되지 못했다. 남쪽으로 허베이성과 산둥성 중부지역에도 비(30-60mm)가 내렸다. 그러나 허난성, 안휘성, 장수성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수분부족상태가 지속되었다. 이 지역은 낮기온이 섭씨 30도대 중후반이어서 작물의 수분증가율이 커졌다. 허난성, 장시성, 광둥성의 강수량은 20mm 미만이어서 6월 동안 수분이 부족했던 상황이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양쯔강 유역에는 주말에 소나기(20-50mm)가 내려 쌀에 수분이 공급되었다.
- 호주: 동부(쿠니즐랜드, 뉴사우스웨일즈) 밀 주산지는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와 표토층 수분이 충분한 상황에서 금주 기후가 화창하고 건조해져 겨울밀의 생육발달이 잘 이루어졌다. 반면 남부(빅토리아 서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에는 비(5-25mm)가 내려 작황이 좋아졌다. 서부지역은 강수량이 적어(1-3mm, 국지적으로 최대 7mm) 증발로 인한 수분손실이 있다. 밀벨트의 평균기온은 평년수준이거나 평년보다 최대 2℃ 낮은 수준이어서 생육발달에 유리하다.
- 아르헨티나: 기후가 서늘하고 건조하여 겨울밀 파종 및 여름작물의 수확 막바지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비는 면화 주산지(Formosa, Chaco, Corrientes). 등 북부 일부지역에만 내렸고(강수량 10mm)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간기온이 평년보다 1~2℃ 낮은 수준이었다. Buenos Aires 남부의 낮 최고기온은 섭씨 10도대 초중반이었고 통상적으로 온난한 북부지역의 낮 최

고기온은 섭씨 10도대 후반에서 20도대 초반이었다. 북쪽으로 Salta에 이르는 지역까지 영하의 기온이 보고되었고 Cordoba 중부지역 기온은 -2℃ 이하로 하락했었다. 아르헨티나 농업부에 의하면 6월 19일 기준 옥수수 수확율은 84%로 전년 동기의 73%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겨울밀 파종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 브라질: 이전에 잠시 건조했던 남부지역은 다시 호우가 내려 밭작업이 잘 진행되지 못했으나 북부지역은 온난하고 계절적으로 건조했다. Parana 남부 및 Santa Catarina의 강수량은 100mm를 초과했으나, 이보다 북쪽에 위치한 Sao Paulo 및 Mato Grosso do Sul 남부의 강수량은 25mm 수준이었다. 이에 2기작 옥수수의 수분이 충분한 수준이 유지되었으나 사탕수수의 수확작업은 지연되었다. Rio Grande do Sul은 강수량 50-100mm의 비로 인해 겨울밀의 늦파종속도가 둔화되었다. 한편 브라질 중부는 계절적으로 건조기후가 지배적이어서 중서부 및 북동부 내륙지역(Mato Grosso 및 Mato Grosso do Sul 북부에서 동쪽으로 Bahia 서부, Piaui, Maranhao에 이르는 지역)의 2기작 옥수수의 생육발달이 가속화되었다.
- 캐나다 평원: Alberta 농업주산지에 심각한 홍수(강수량 100mm 초과)가 일어나 작황피해가 발생하고 농업인프라가 손상되었다. 다른 지역의 강수량은 10-50mm 수준으로 밭아 중인 봄밀에 충분한 수준이었다. Alberta 남부 및 Saskatchewan 북동부의 주간기온은 평년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었으나 그 외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었다(낮 최고기온 섭씨 20도대 중후반).